



雙  
新  
小  
說  
玉  
淚  
上  
篇  
쌍  
옥  
루

私立京城女子學校

金澤樂

76

1913 上

1913

쌍 옥 누

(雙玉淚) 上篇

데 일 회

쌍 「에그머니 나는 몰나 선성님제엿줄러이야」 흥며 나히는 열오륙세로 브러 열팔구  
 세사지나 되얏슬듯흐니 녀즈사오인이 의복은 다 못치 검은 초마저고리에 반겨름  
 도신교 혹은 구쓰도 신어쓰며 머리는 서양머리도 흥고 싸여 서나리고 자주당귀  
 드린 녀즈도잇는디 지금 학과시간이 맞춤과 흥야 서로 열크러져서 학교운동장  
 으로 짓거리며 나아오니 이는 녀 학생일너라

옥 「저이형님이 쉬 시집을 간다지 어디로 가누 인제 열여섯살밖에 안이 되얏슬걸」  
 하하지이경즈는 남시집간다는 소리가 펍부러운겉세 그럼너도어서시집보늬달  
 나려무나」

누 「지이는 남을그러케 무안잘쥬더라 늬가언제 시집가고 심뵈나」  
 「그리도너는 일상말이나는 사나희가되얏드면 미술가가될겘 그리흥엿다 흥엿  
 지」

1 「아니 모르겘다」  
 「그러케 성닐것이야 무엇잇나 미술가가 좃겨는 미술가에게로 시집가렴 응그

러치 — 이의영순아 너는무엇이도흐나  
「영순이네」 의학가가 좃타더라」

「일사찰은알았다 영순이가 의학을조와히 의학가조와하는사람은 경조란다」  
「아 경조는 그말이정말이나 응」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아 너는입되지물났다 아주소문이 짹짹글글단다」  
「아 그리고런디 의학교학성이라지 그게정말인가 아마 거짓말이겠지 경자야 그  
럴나가잇슬나구」 품형점은 학교에서 제일인데 사람도단정하고 친절하고 공부  
도잘하는사람인데」

「나는그리도 경지가그런줄은몰랐지 사름이란것은 외양으로는 아니갈것신게  
야 엇저면그럴까」

「그리게 뜻밖이란말이지」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저기서디문으로 드러오는것시 경지아니냐 그  
러치」

「아 참그이가 경지다...우리불너가지고 조롱이나 한번히쥬까」  
「아니 이만은여학생은 다른녀학생의 의견을듣는다 다른녀학생들은 말니는  
말로

쌍 옥

「아서라이이 붓그러워한다」

「나만흔녀학생은 입으로비우스면서

누

「관제치안이허오 그런학생이잇스면 학교의명예가 손상히서 못쓴다 암만히도  
그냥은들수업셔」  
「이이경지가경지야잠간이리오나라」

「이이경지는녀학생은 저기일흔부르는소리에 고기를훑돌리며 바라보니 삼  
사십의학생이 모혀서 우슴들을 듣고잇는지라 이경지라하는녀학생은 동  
모들의실업손작란으로 불넛는가하며 배로 교실로드러가라하니 그중에나이란  
은녀학생은 소리를더욱높히하여

「아 이리좀와요 응경지야 조흔이야기 한가지잇스니 잠간만오나라 응이의 동  
모가부르는데 안이올것은 무엇이야」

데이회

쌍

옥

누

누

그경지라하는녀지는 부르는의미는아지못하나 저기를부르는 녀지들은 평일에  
서로 친근히노지도아니할얏거니와 별노이심지가 도흔봉우가아니라 썩무슴말  
을할려하는고하여 한편으로는마음에실족하는 그러는아니가불수도 업는지라  
녀지는년과는 심철팔세나되어보이고 빅옥같은얼굴에 량협에는 흥도식이 은  
々히나타나며 미목이슈려하여 사름으로할여곰 한번봄에 사랑스러운모음이  
스스로이러나게되겟스며 서양머리로 쪽진머리우에는 남빛나는「리썸」을썸자  
있고 거문무명을 발다듬이하여 줄음을듬성／＼잡은 동초마는 발뒤꿈치까지  
잘잘싹을나게하여 밧삭취키여입고 남왜중첩조고리는 몸에낙낙하게 지여입었  
스며 을은손에는 칩보를드러스나 은근이 얼골에는심는하고 경황업는괴식이  
나타났더라

악가부르던 나히만흔녀학생은 그외이삼인의녀학생을 눈짓하면서

「이이 경즈야 너는요사이 어딴가압호지」  
「안이압흔데는업셔」

함며 귀운한아도업닌 디답으로호다

「그런데 왜요시는 운동장에도 놀나나 오지도 아니하니 아마 너는몸이 어딴지  
성치못호게다」

또호녀학생은

「우리가그리아니히도 지금까지 네이아기를호면서 어딴몸이불평히셔 그리호  
느모다고 한참걱정호던추이다」

「아이참곰마와라……별노압흔곳은업셔도 노—두통이나셔 그리지……그런데  
날다려 무슨말을호라고불너니응」

함며 경즈는그여러녀학생의입에서 무슴말이나오는고호며 의심을진정치못호  
고치여다보며 아모조독 이압흔속히치여가려고 마음이조급호다

「갑안이좀잇셔요 너인제조흔이아기를 들너줄러이니 저경즈는 네병에 믿음  
너무티워셔 난병인가보다고 호요」

경즈는이말을듯고 얼골이별안간에 발키지는티

「아니가언제그런소리를히니 그것은말간거짓말이다 그애는남의 이간을붓치지  
못히셔 애를쓰네그려」

「하아그러치만 그사진말에 성별것이야 무엇잇디 그런데 경즈야 공연히병을  
그러케업스네기지말고 의원을보이고 약을먹어야지호다」

「나는그만가겟다 공연히쓸티업는 소리만호는코나 나도급히볼일이 잇는디그  
리니」

함며 경즈는핑계호고 빠져가려호는것을 그나히만한녀학생이 또소리쳐부른다  
「이리와요 할말을쳐다호지도아니히셔 달아나라고만호디 니가모도여러사름에  
개일을테야」

무슴일인지는 모로나 여러사름에게 일으겟다호는소리에 경즈는 마음이 째짜  
놀나와 그녀학생들의 얼골을 쳐다본다

「호호하하」

함며 여러녀학생들은 입을가리우고 웃는소리는 사름을압헤 설어다노코 마음  
뒤로놀너주는모양이라

이씨호녀학생은 나히만은녀학생을 치여다보며

「나는저 경즈다려 무러볼말이잇셔 그것은셔은근한말이야」

나히만은녀학생은

「나는모로겟다 은근한말이잇거든 무러보렴 그러치 경즈야」

「아이 나는가겟다 공연히쓸티업는 소리들은……나히만호녀학생은 경즈의압호」

로 밧삭가더니 귀에 입을 디이고 감안이

「네 작고 다라느려 하면 니가 모도 여러 학도들에게 죄다 말올테야 공연히 하라  
는 디로 하고 감안이 잇서」

쌍

경조는 이 말을 드르미 무슨 나의 은근한 일이 루설되야 이와 갖쳐 심사사오나 은  
동모들에게 잡힌비되얏는코야야 마음 놀납고 또 혼습혀 엇지 할 줄 모르고 우  
두커니 다시 서서 잇다」

「우리가 그러케 경조의 병을 그러케 걱정 할 것도 업단다 경조는 의원이 노사  
라다나데」

옥

「아그리」

여러 사람의 눈이 모다 경조를 바라보니 경조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기를 들지 못하  
고 발뺏만 나려다 보고 잇다

누

「그러치만 경조의 병은 의원만가지고는 안이 되야요」

「의원에 산과는 업다더나」

다만 보던디 경조는 이 두어마디 소리에 앓가브터 속으리고 잇던 얼굴이 점점더  
속으러지며 빅설가흔 귀뒤로브터 머리뺏치져 별안간에 다홍물을 바른것갓치  
된다 이씨삼사인의 녀학생이 불시에 경조의 얼굴을 드러다보며

「이이 경조야 웨그리하니 아 마 별안간에 상기가 되느부다 얼굴이 왜 이리 붉으

나」

「그것 무슨 짓이나 영순이 씨문이지 남을 무안을 그러케 준단 말이냐」

「경조야 그럴너가 잘못히다 나는 정말 쓰셔히 아지 못한다 부러그릿지 만일 그런  
일이 잇더리도 우리야 여과서 씌이지 누다려말이야 흥갓치 나는 안이 혼다」

경조는 무안에 취한 몸을 엇지 처치 할는지 엇절 줄을 모르다가 간신이 고기속엿든  
처로 몸을 돌니여 뒤문을 향하고 다름질하고 나아오는데 뒤로조차 쌀쌀웃는 소  
리가 나더니

「경조야 너 무다름 박 절하지 말나 비가 올니 면 못 쓴다」

경조라 하는 녀학생은 심사사나 온동모들에게 조소를 받으며 운동장을 나서서 다  
시는 이 학교문에 안이 드러오리라 결심하고 그길로 학교 뒤문을 나서 내외기속  
향는 곳으로 드러오느러 이러라

데삼회

「나는 인제 학교에는 다시 안가... 남도 보지 안이 하고 이터로고 만 죽어 버릴터야」

한면 후후능기는 목소리로 최상우에 두팔을 걸치고 엮되어서 정신 업시우다가  
드는 얼굴은 눈물의 눈이 투도 두러지도록 부었는디 혼자 말로 중얼거리며 한탄  
하는가삼속에는 무한한 슬픔과 애동이 점점 심할 모양이니 이녀는 경조라 이르  
는 약가 학교로브터 도라온녀학생이러라

이녀는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누더거성하여 명망과 지산이 일군에 으뜸으로 지니는 리과장(李箕藏)이라 하는 사람의 딸이니 심세에 그 모친을 여희고 그후는 부친의 손으로 전허양육훈비되었는디 그부친이 로리에 다만일녀를두엇슬뿐아 니라 가세불빈함으로 이모친업는살하아를금지옥엽又치하여 쥐면세질가 불 면날가하여 오날까지 부친의 총애중에서 장성호리경조더라 리경조는 비록부 친의 사랑과 응석으로자라나스나 텨성이영녀하여 만사가남보다뛰여남의 사람 마다극히사랑하며 괴특히여기여 어려쓸씩브터 일군에소문이 조조하였더라 경조는 부친의 힘으로 가덕에서 텨강녀조의 닥글만한학문과 침공은비왔스나 지조가또한출중하여 문일지심함을뿐아니라 조리가스스로 학문하기를 질피여 그부친에게 항상 고등학문을비호고조청하나 부친은 허락지아나하여 여조는 고등학문의필요가없음을말하느니라 경조는 아렴으로 부친의명이라 엇지홀슈 업더니 이씩맛춤 고동리에이웃하여사는 김승지라하는사람이잇스니 본리는경 성사람으로 사환에종사하다가 청운에뜻이업서 이삼년전부터 가속을다리고 이곳으로락향하였는디 위인이관후하고 진실하여 공주일읍이 다양망하느터이니 경조의부친도 김승지와이웃으로 살물 인연함이아니라 조연셔로추축하미 디기우가되었는터이라 그럼으로 리김량가々 안팎업시형제갓치 리왕이빈삭하 여 김승지의부부는 경조를사랑하기를 친지갓치 하든터이라 김승지는경조

쌍

옥

누

를위하여 그부친을간절히천고하되 금일제상은 전과다름으로 비록녀조라도 보통지식이업슴이 불가한것으로 누누히세우친바이잇섯더니 과연리과장도 김 승지의말을을니여기고 방년이십스제된 무장사랑하는여이를 경성으로올녀보 니여 경성중에도 제일유명하고 신용잇는녀학교에 입학을식인지 임의사년이 되얏더라

쌍

옥

누

고상훈학술을 다고져함은 경조의본리브터 원호던바임으로 경성에올나온후도 학과를힘쓰는고로 학교중에서도 칭찬이지극하여 나이점점먹어갈사록 녀조의 열분리도도 점점하여 나이임의십칠세에 일읍에 셋또흔얼골과 정숙호리도는 사람의눈을놀닐지라 그럼으로조연 부랑훈학성들의 입우에올은일도 적지아 니하더라 경조는 시골셔처음을나온후 이년동안은 김승지의일가집에 김승지 의반연으로 몸을부치엿더니 그집에서마자시골로 내려간후는 미일단이는학교 의제봉교사로잇는 오정당이라 일크르느녀조교사의 건넌방을빌어 녀의쳐소 를삼아잇는터이더니 지금리경조가척상에 업티여 우는방이 죽오정당의집건 년방이러라 텨저리경조가 이날학교에서 친구에게 슈치를당하고드라와 홀로 호읍향는연고를 볼가불 말안이치못할것슨 이는다름아니라 리경조가점점여러 타락훈학성들에게 쥬목하는바되더니 그와또흔학성중의 서병삼이라부르는의 학교학성훈아이잇는디 이 서병삼이라하는사람은 괴독교교도이니 무슴연고로

그독교도가 되었는데는 알지못하되 우연히 리경조의얼굴을 한번본이후로엿  
 지하면이뜻을 너의슈중에회롱하는물건을만들고저하는야심이 불니듯하여쥬  
 소로그계책을싱각하는터이라 이남조의집은경상북도 대구부 심여리나가서  
 달성촌이라하는곳에잇스니 집안이본리부요하여 학조금의군석이업슬뿐안이  
 라그외에방탕이 노는터쓰너라고 서류편지가 한달에도 삼스츰식되는터이라  
 그림으로 그독교신도들은이서병삼의형실을보고 눈쌀썩흐리는일이 한두가지  
 가아나더라 그러하나 의학에는되단열심하여 학교중준저로 지목하더라 이남  
 조는편이라하는것은즉육욕이라하며 더욱이의학상의지식으로 육욕이외에는  
 편애라하는것은업다고쥬창하는사람이니 신성하며 쓰는교상훈취미가 그스이  
 에잇슴은 모르는연고로 결박한남의너조의몸을 더럽혀놓는거시 곳그심령에다  
 시씻지못할 혼적되는줄은조곰도모르는터이라 가련무죄호리경조는 이와갓흔  
 니담부정혼남조에게 쥬목을 밝는비되얏더라 이서병삼은 리경조를 수중에회  
 룡하는구슬을만들고저하여 싱각할씨에 티장을잡으라하는되는 먼저 그말을  
 쏘라하는말과저치 경조를니장중에 너흐라하는되는 그몸을벗치여잇는 쥬인을  
 몬져 너손에너음만저지못하여 이에 서병삼은이계책을 실행코조하여 자조경  
 조의 그속하는집쥬인 오정당을뉘이기를 시작하얏더라

데스회

쌍

옥

누

의학성서병삼은 리경조를 슈중에집어너흐라함이 우선먼저그집쥬인 오정당  
 을농락하여 너의심복인을만들고저함이러라 이오정당이라하는너조도 본리터  
 구사름으로 소년과거하여 서부모에게 의탁하여 지나다기 서부모가구물호후  
 는 호구할계책이업서 근근히날을보되더니 서울아는사람의쥬선으로슈년전부  
 터너학교저봉교사가되여 홀아씨살림으로 동관근처에 집을한아작만하여가지  
 고 지니는터이러라 그림으로 전일티구에서 거성할씨는 서병삼의집과도 서로  
 왕리가잇섯고 서병삼이 어려쓸씨에도 오정당의집에가서 각금은일도잇서서  
 서병삼은 심여제후부터 경성에올나와 학교에단엿스니 오정당의연줄을알고  
 환천희디하여이정던얼굴을서로이인스하고 전일구의를츠자 그후로는자조왕  
 리하여 오정당과 다시과일의회를엇엇더라 서병삼은영민호고로발셔오정당  
 의성품이 엄절치못하며 쓰는저물을엇는일에는 무슴일이던지 사양치아니하  
 는줄을알았는고로 민활호슈단과 너의임의로사용하는저물로써 드피여오정  
 당마음을흡족하하엿더라 그러나심중에잇는 리경조일절은 입맛개너져아니하  
 되 이는청스러운 오정당은 심중에임의 서병삼의뜻을 팔구분이나 짐작하엿는  
 고로 마음으로는근히 저사름을위하여 쥬선하는슈고는 사양치아니하겠다고  
 싱각을하엿던 바이러라

쌍

옥

누

서병삼은 미목이슈려호남조라 오정당의집에 자조출입함으로써 리경조와도



자연서로 수작을 스고인일이잇스나 리경즈는본리심중에 아모뜻업서 션성의집  
 에 왕리하는사람인고로 의심치아나고 지니이나 심중에 뜻이잇는 오정당은  
 은근히경즈에게 향하여 서병삼의인물을 총찬하며 품행과의리가잇음을 포양  
 하고 또논의학교에서도 성적이초인함을말하며 이세상에밋을만흔 남즈라고  
 항상말하여 경즈의마음을 은연지중에 움적여노으라하며 경즈는소설을조아함  
 을보고 이를리용하여 청년남녀의연이라하는것은 극히신성훈일이라고 가르쳐  
 주어 아모조록경즈로하여곰 남녀의이정이라하는뜻을 깨닷도록힘을쓰니 서병  
 삼과오정당두사람사이 에 스로잡힌비된 가련흔리경즈는 임의합정에빠진몸이  
 라 줄연히빠져나오기 어렵게되얏더라  
 의심스럽고 밋을슈업는것은 남녀간에사랑이라 이것을비유한디 물우에쓰부  
 평초갓하여 스랑이라하는뜻을밋아잇는 남녀는 밋셔그몸에 부침이달녀잇는것  
 이어늘 그도아지못하고 잇슬동안에 진실로완전흔 뜻이라일을지르다 디범상  
 상의 질거움이라하는것은 제반질거움중 더욱질겁다하나 더욱이요령남녀가  
 비로소 세상사를분별홀디경에 일으러미리를 상상하는마음으로 남녀간 편의  
 에질거움을 상스하는것곳치 질거움은업는거시라 사나히와혼가지로 뜻을구경  
 하며 달을완상하기를상사하며 질거움을갓치하고 근심을또흔 서로논아하기를  
 생각하여 금슬이 화합하여 단란한가정의 대락한자미를 맛보고즈하며 서로써

나서는 듯는듯흔정으로서 차를서로주거나 밋거나하여 그리는회포를 위로하기  
 를싱각하여 이것을싱각하고 저것을싱각하여 장리치지싱각할씩는 비라는마음  
 이 점점더하고 질거움마음이 지극함을 마지못하는니 이림을인하여 청년남녀  
 의편애라하는마음이 비로소 일어남이라 이러함으로 비록천치는못하나 이와  
 못흔청춘남녀가 맛날씩는 홀로신괴서려움마음이 날씬아나라 한낱말할수업는  
 쾌미가감동되는니 이는일운바 타성이서로 감회되는묘리에서 나오는일이오  
 별로하이상할이라 일을것스업는니 리경즈는 미리를상스하디 좃츠남녀간  
 편애라하는거슬 스스로심두에일으키며 리경즈는 더욱이이와못흔상상이 만은  
 사름이라 그런고로 심중에는 임의고상할편애를 리상하며 편애라하는거시 극  
 히신성훈일인줄로 밋고의심치안이흔다 본리브러 정육의 질거움은 삶에도 구  
 향는마음은업고 절디덕으로 신성훈편애에 충실한사람이 되고즈원한던터이라  
 슌흐다 세상의 경력적은 처녀로 편애에디흔마음은 비록신성훈지라도 이는모  
 리밭우에싸은 담과못흔모양이니 장차엇지하리오 서병삼을 찬양하는 오정당  
 의말을드를제마다 경즈는공연히 마음이깃겁고 서병삼이오기를 은근히마음으  
 로 기다리게됨에 오정당이 남녀간편애라는말로 니야기할제마다 몸에삭여들  
 니여 심지를서로 통하는남녀가 서로한가지로 부부될씩까지 청결한교제로지  
 니면 그고상한질거움이 오죽조흐라하여 마음으로 싱각하는상상계의 질거움

이실상으로 오늘날 나타남과 갖치 생각되됨에 이에비로소 가련흔리경즈는 가슴속에 편애라함은물건이 가득하였더라  
 숨흐다 결박흔남녀의교제로 서병삼도 이 리경즈와又흔 리상을품은 청년일것  
 갓흔면 그와又치 결박하고 질거운교제를 계속하여 편애에 대한리경즈의리상을  
 을 실행할날이 있셔슬거시어늘 서병삼은 리경즈의눈으로보고 판단할과又흔  
 요흔청년이안이라 가련흔것은 리경즈의 장리신세라  
 제척이잇는 오정당은 학교에서 서중휴가함을리용하여 리경즈를다리고 기성  
 티홍산성에 피서처로 느려갓더라 그곳에는벌써 서병삼이가 정결흔곳에 휴인  
 을잡고 오정당과리경즈가 느려오기를기다리고 잇는터이니 리경즈를 대홍산  
 성으로다리고 느려오는거슨 다 서병삼의제척이니 서병삼은즈괴뜻을 비로소  
 오정당에게 고하고 그부인의동의를엇은후 리경즈에게 서병삼이 그곳에잇서  
 우리두사람오기를 기다린다는말은 일으지안이하고 다리고왔던터이니 이는서  
 병삼이 저리로먹어오던음을 일우자함이러라

데 오 회

리경즈는 선성오정당과 한가지로 송도티홍산성에 이르니 뜻밖게서병삼이가  
 먼저와서잇슴으로 심중에얘잡놀뉘엇스나 본리나가시려하든 남즈가안임으로  
 도로혀 착흔남즈가흔사람 와셔 갖치잇는것이 든든하며 비록남즈와 함씩잇스

나 선성오정당과 한가지로잇슴을 한편으로 밋엇더라 그러나 밋는마음과又치  
 못하여 이삼일지니인후에 경성으로브러 한장던보가왔스니 오정당을급히상경  
 하라는뜻이라 이는말이썩던일인고로 오정당은 급급히행장을차려 경성으로올  
 나가려하더라 경즈는 선성의을나감을보고 남즈와 홀노떠러져잇슴을 실이역  
 여 지치지삼갓치 을나가자하나 오정당은 잠깐단여 오겟스니 잠시멧칠동안만  
 이곳에서 기다리라는지라 할일업시 경즈는 오정당의 말을쫓추 서병삼한사  
 름을의뢰하여 엇게되얏스니 일이이저경에일으미 가련흔양의몸으로 독흔사람  
 의 슈중에들엿더라 그후일은 참아그룩하지못하게스며 다만리경즈는 즈괴의  
 리상의 청결흔교제는 임의더럽혔더라 사랑의슈중에더러간양이 아모리버릇져  
 거리나 도망기어려울거시오 키가제아모리 영리하하나 여호의감언리설에속  
 을지라 서병삼의 설보다단말과 경즈를후리든수단으로 리경즈보다더흔 녀즈  
 인들 엇지그독슈에게 버셔났스리오 리경즈가비록 발명할지라도 몸은임의더  
 럽혔스미 분명하니 숨흐다 어제까지 비설갓치청결하던 리경즈가 오날브러  
 업셔짐을면치못하였더라

리경자가 오늘날학교로브러 올며도라온사정은 누누히설명하지안이하여도 알  
 거시니 리경즈는 그날브러 서병삼에게 슈티흔비되얏스며 이와又흔스정을 학  
 교의 여러학생에게까지 루설되얏더라 경즈가비로소 티중됨을 스스로 짐작할

엿슬썩는 놀납고심난흔마음을 청냥기어려운지라 그러나 선성오정당이던지  
 서병삼에게는 말하지아니하고 다만홀노근심하며 마음을티우는디 엿지할면  
 이일을은당히쳐치하여 몸소지은죄를 뉘웃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마음이 금  
 키어려우나 서병삼을 생각하느니마음은간절하여 전일과다름이없다 이리하여오  
 날날저지일으렷스나 뒤에서사람이 나를향하여 손가락질하는것이 스스로서  
 심에 붓그러온비되어 미일학교에단일마음이 점점감하며 빅가지로싱각하니  
 그학교에서 퇴교아니할슈업는지경에 일으렷는지라 그러나 교향에게신 부친  
 에게는 퇴교할연유를 무엇이라하며 말할홀도리가업슴으로 금일저지이리저리  
 혼자근심으로 이룸이러니 발서여러학생들에게 나의흥절이 발각되얏스나 무  
 슌나으로 사름을보며 무슴얼골로 학교에가리오하여 이싱각저싱각하다가내  
 몸의장리를싱각하니 공연히숨흐고 처량하여 조흔게책이업스니 오히려 선성  
 오정당과 서병삼에게 나의늑심을 의론하여 몸주체를 흥만가지못하다하니 이  
 러흔스실을 부친이알지경이면 무엇이라말슴할는지 또는은혜입은 김승지집  
 니외분이얼마큼 이몸을 알것갓흐면 필연코 우리두사람의정을 빼이게할거시  
 니 이를싱각함에 압서는것은 눈물이라 가슴은찌여지는듯하며 눈은부어올으  
 도록 체음하느니 홀연بات그로서 사름드러오는 괴책이느며  
 「경조야」

쌍

육

누

쌍

육

누

하고 부르느쇼리난다 그러나 경조는부르는 쇼리를못드렸는지 최상우에업드  
 려잇고 티답도업다 이 부르며 드러오는사름은 그집주인오정당이니 이제학교  
 로브터 도라와서 경조의방으로 드러올이라 이부인은 스십여세나되얏으며 북  
 으수름하고 우둥둥흔얼골이오 반고슈머리에 쇠부장흔눈이니 역시검은차마  
 저고리를입고 경조를부르되 티답업시 업티려서 우는모양을보고 말소리를 짹  
 짹하게하여  
 「이애경조야」  
 하며 경조의역기에 손을펼치고  
 「웨그리우니 오날은 오후브터는 학교에서도 못보겟더구나 응-웨그리니 응  
 -경조티답좀히.....네.....」  
 한마디하고는 후후느기는소리뿐이라 오정당은 경조의엿호로반사닥아안즈며  
 「글세웨울고잇니 웬일이야 글세말좀하려무나.....응.....」  
 경조는 간신히얼골을들며  
 「나는분히서 못견디.....」  
 오정당은 경조의눈을 한층드러다보더니  
 「아 눈이저깨우어야 이하고 짜흠을흔게로구나 응 그런일은 나는 모르게  
 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게 안이요 똑분고 설어서 못견디겠세오」  
함며 설음이 가득할모양으로 오정당을치어다본다 오정당은 코흔희포가 나는  
듯이

「그럼 무슨일이잇서 그리니」

데 룩 회

경조는 칩상우에엎디린치로

「오날학교에서 정조하고 영순이안데 별소리를 다드려셔요」

오정당은 썰々우스며

「응 그일이야..... 그사진일에 무어슬이닥지하니 너는마음이 너무약히셔 그

릿치 나갓흐면 선선히그르타고 디답을터야 하々々」

「선생님 그일뿐이면 그티로 오히려관계치안이하게지요..... 별못된소리를 다

하니까그르치오」

오정당은고기를세우리며

「응 별못된소리가 무슨소리냐 응」

「.....」

「글세이이 무슨모된소리를 학도들에게 들엇다하느말이나」

함며경조를 드려다보니 경조는중시도다시디답을못흐다

쌍

옥

누

「을치알앗다 나도못된소리를어더드려싼말을 알게다니말하랴 응 경조야」

「예예」

함며 경조는놀니이느모양으로 얼굴을번적든다 오정당은 서서이

「정조야네가 나를속이느것이 안되엿다」

경조는 짜답을 알슈업는듯시

「니가 선생님께 무엇을속이엿셔요」

「오날여러학도들에게서지 말을드렸다면서그리니」

경조는 별안간에 얼굴이 불거지며

「예예」

오정당은 우수면서 소리를감안이함여

「니가안다 네가지금 티중인줄을모르가」

쌈씩놀니여 책상에엎디여잇든 목뒤가 훌연히진홍색이되며 붓그러워치신무지

함여함는 경조를 오정당은 이유히보다가

「경조야 나다려말하느데 붓그러울것이 무엇이나 남들이다아는디 오날학교에

서 못된소리를 드렸다느것이 아마 그말이지」

경조는디답이업스나 디답도업고 발명도안이하느것시올라하느디 디답인줄 짐

작하고 오정당은「그러나 여러학생들이 발셔아랏셔 이일을엇지하면조흐냐

그리게진작 니게먼저말을했드면 조왓지...나도 그런괴미를안지가 불과오 일이로구나 그러나 인제엇지할슈업스니 니 잘일이페이도록 할여쭈마 염녀마 라 그리고학교는엇지할테나 그리도당길터이나」

경조는간신히 얼골을들여

「학교는인제 다시는안이갈테야요」

하며 원망하는것처럼 오정당을바라본다

「그것은 다늬가잘못한싸움이다.....이 모양된것도 다늬가지여닐일이니 엇더 든지 니가맛하셔 잘할여쭈마 그러나 전후험구 영순이가 이일을알았스니 그 것이 안되었구나 일이지디경이되었스니 불가불써에게말히셔 폐도룩할여줄 터이니 안심하고있거라 학교도 몇칠동안은 좀더단이게할지 그러캐붓그럽고 원통할것이야 무엇있니」경조는 슬픈모양을씩워가지고

「학교는 벌써 다시안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치만 고향에 우리아버지가 이런스단을아실것갓호하면 엇지하나 하는생각이 또걱정이되어서.....」

「예서 삼백리동안이나되는곳에 안저게신부친씩셔 당초에이일이야 아실슈가 있니 그리고또 서울단어가신지도 얼마못되닌간 다시올나오실리도업교.....」 경조는 눈물을씻스면서

「그래도 나는서서하고 하여질생각은업셔요」

「글세 이해야 나도다안다 서씨도 네모음과맛찬가지야 나도아모도록 길게장 래서지 부부가되어 살도록쭈션홀터이니 녀려마라 하々々」

「그러치만 그런일은.....우리아버지가 아셔야홀터인디요 나는안만히도..... 암만히도 우리아버지의허락을받아야 모음이노일테야요」

「그러면 엇더케할라는말이나 너의부친씩셔아시면 큰일나게다고 걱정할면서 또부친모르게는 서로부부가되지못할갓다하니 이일을엇지할면 좃탄말이나」

「글세나도 엇더케하면 도케다는말이안이나와요」

「하々원 이일을엇지할담」

오정당은 한참있더니

「경조야 그네말은 아모리할여도 서씨하고하여질마음은 업단말이지」

「이위 이모양이되었는데 만일셔로 하여지게되면 나는 지쳐라도할여셔죽어버 리는것이낫지요」하며 경조는 다시얼골에 독흔빛치났을난다

「그럼내가 너의부친씩편지하고 이와처럼 싸님이골돌이싱각할여 이스자처하 니 서씨와흔스를 일우게할여쭈라고 한장붓쳐볼스가」

「만일못한다고 답장이오면 나는그자리에서 죽어버릴테야요」

「그럼 편지나엇의 경솔히할여볼슈있니」

하며 오정당은 눈살을썩히고 한참있다가 「그럼우리 이리히보작구나 내가

서씨를청히서 그일을위선 의론면저해보았스면 그게데일상책일듯하다」  
항며 오정당은 허웃는다 경조는정식항며「그리도 그이날일상 무슨말을정신  
드러듯지안이항니싼 나는조미업습되다」

「그러항면 그도그만두샤」

「안이 전성님은」

「하々々」

데 철 회

「어둔밤에 주먹니밀기로 별안간에 이런말을항니 엇더케항잔말이오」

항며 여송연을티우면서잇는 이십륙철세된 준수항남자가 다사 다지예리양복

을입엇스며 그엽히는 네모진모자에 의짜휘장을달아잇는 모자가잇스니 이사

름은죽의학교학성 괴독교인에병삼이오 이남자와서로되 좌항부인은 오정당이

니 손에권연을들고 썩썩피우면서

「그것은 누가할말인지모로겟소 나도지금와서 독듬의탕관으로 엇절수가업구

려」

「그러면 나다려엇지항란말삼이오 응 당신은」

도대체 어진외항으로 이렛케항고잇서항며 오정당은

정식항는모양이라 서병

삼은 예스로

쌍

옥

누

「무엇을 엇지항싱각이나고 그러시오」

오정당은 서병삼을 눈흘겨보면서

「저낭반은 공연히저러케 시침을잘썰더라 무엇이라논것이 무슨소리야 리경조

말이지 니가썩장이란말이오 엇지항여서 당신만밋고 이리항였다가 니가무슨

모양이란말이오」

「니가 리경조를다려가던지 니여바리던지 당신은아모상관말고 계시구려」

「그러시무슴말이오 리경조의 불상항것은고사항고 제왈나를사름으로알면그

런소리를항겟소 당신이쳐음날다려 말흘썩에 이번니소원을일우려주면 그은혜

는 죽어도못잇겟다항엇지 그리고이후에라도 당신의리우가되게항다던지 당신

이시비를듯게항다던지 항는일은 업게시리항터이니 제발사름하야를 살녀달나

항기에나도밋천모음으로 이모양을항여노앗더니 사름의인스가 그럴슈가잇소」

「아 그것은 그썩니씨 그리항엇지오」

「아이고머니 원 기가막혀말이안이나오네 그러니씨 남의집쳐녀를 기싱이나

삼피가지고항듯서 잠시잠간회롱으로 그리항였다말이오 명식이사나희가 그러

케모음을먹어서 엇지항오」

「그러나는 그리항사름이오」

「당신은남의 힘써서항는말을 코로되답항는구려 이것이롱답이아니나 좀정신

들여서 말을들어 주시오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을 터우고 있는 사람하아 이 잇스니」

「네네그럼 정신차리시오」

「에이여보 네네가 무었시오 보기실소」

「그럼 네소리도 하지 말고 감안이잇스릿가」

「아모리나 하시구려 그런줄몰나더니 그러케 사람이 싹싹한단말이오 남은죽는나 사느니 하는디 자괴는티연무심하고 잇단말이오」

쌍  
옥  
누

「안이 내가 티연무심하는거사안이라 당신이넘우싹티업는 긴슈작을하니싼나 도 그리히시오」

「내가언제 긴슈작을히단말이오 약가부터 리경즈를엇지하는냐고히지 만일당 신이 그쳐녀를 인제와셔돌라본데를안이하면 그쳐녀는죽을터이니 남의집외설 이 아모죄업시 죽는거슬보시려오」

「오정당은진정으로 정석하는모양을보고 서병삼도 참스러이」

「언제네가 그녀자를도라보지안이하고 너버린다고말하였소 지금별안간에 살 님은 서로할슈업단말이지」

「그러면 당신이졸업후에는 서로갓치살님을할것노라하시느 말씀이오구려」  
「실상은 나는그런생각은 조금도업는데……」

쌍  
옥  
누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잠시간 정육을위로한일이로구려」  
「일을레이면…… 그러할슈도업고……」

「여보그래 남의집숫직시를몸까지드럽혀놋코 인제와셔 일을헤이면 이 다무엇 이오 일을레이면 소리한마디에 일이다페이겟소」

「살님사리를하는것도 어린히들의 솟곱질이아니니 오날시작하였다가 래일 파하는슈도업고 오래되면 또 실증이난잇간 그러치」  
오정당은 이말에 골이버려나서

「그러면 리경즈를 기성이나 삼피로알어섭던닛가 처음부터 숫직시 인줄은당 신도알일이시오 노는계집갓흐면 한달을다리고살던지 두달을다리고살던지 하 다가내뜻에 불합하면 버리여도 관계치안치만은 남의집숫직시를 요리조리속 여오다가 인제도라본데도안이하고 시침이를떼이니 그런천하에 무도한일이어 디잇단말이오 사름치고야 그러케말을슈가 잇단말이오 당신도교인이지요 그 래성경에 남의계집히를 속여회롱하여도 관계치안라고 써서잇습던닛가 그 런인정머리가 어디잇단말이오」

「여보시오 그닥지역정별것업소 의론디호흡시다그러」

「나는성좀별테야 대테가 비속에드러안져잇는 어린애는엇지할생각이오」

「아 그사전거시아 걱정을것무어서오 락히히브리면 그만이지」

할며 어렵지 아니하게 말하느니라 오정당은 그가 막히여 입을 딱 버리고 혼참말을 못하다가

「어디 사름이라고 말할슈잇소」

데 팔 회

쌍

옥

누

오정당은 서병삼에게 리경조의 일을 위하야 담판하엿스나 대답하느말이 도모지 요령을잡을슈업시 이리저리창략하니 서병삼의 마음은 말서리경조가 실증이란 모양이라 졸연히 화합할 부부가 되여 빅년을과약하기 어려울줄짐작되니 리경조를 위하야 니름에 불상흔 마음 총량기어렵다 원래자기는 서병삼과 리경조 두스름의 장래는 길게싱각지못하교 다만저물에 눈이열니여서 중미징이의 형실을하야 서병삼의 소원을 성취케하엿스나 스스로량심에 붓그러운비잇셔 자기 리경조의 손목을 이끌어다가 이와듯흔비춤흔운명에 싸지케할일이 믿음속에 누웃치며 서병삼의하느행동이 심히분하나 지금일으려 후회막급이라 비록지금서병삼을 억지로라도권하야 리경조와 혼례를일우게할지라도 저와듯흔경박흔소년에게 보니엿다가 도로혀장리에 교생만더하케할분이오 조곰도괘락할자미는 보지못할일은 반듯흔형제라 그러함으로 츠라리 이제리경조와 서병삼의두사름으로하야곰 서로리별케할만 갖지못하며 북중에으히는 서병삼의말하던브와듯치 아모리척은하더리도 썩러트리는것이 오히려나흐리라하며 무슈

쌍

옥

누

히생각을하더니 서병삼이 도라간후 조곰있다 가 밧그로나아듯든리경자가 비로소도라오는것을 자기의방으로 불너드리엿다  
이제드러오는 리경자의 얼굴을보건디 눈물도다거두엇스며 부어올랐든눈썹질도 나리엿스나 다만심령상에 밧은바 더러운흔적은 나을도리가업스니 우나니보다 더흔설음은 안식에나타나며 풀씩업시 한편의필석쥬저안는모양을 오정당은감안이안져보더나  
「이애경자야 서씨의일에디하야서 네가갑히싱각할일이있다 나도네마음을 다아는리이지만 꺾머서철업슬씩는 공연히무음에 저남자가안이면 나는죽어도 다른스름은 섬기지안이하겟다하는싱각이 업는법도안이저만은 그씩를다지너여눗코 다시싱각하면 웨닉가그씩에 그사름에게그닥지 밧쳤던고하며 누웃치논일이 만은법이나라 그리게네나히척이 제일어려운씩야 이씩흔번먹는무음이 일평싱고락이달니엿단다 남너라는것은 처음에밧쳤느니 흘렸느니하다가도그씩를지니고보면 그사름이다그사름이니라 너가서씨를두고서 밧티고하느말이안이라 제상샤가 다그려하단말이다」  
경자는말업시듯고잇더니 얼굴을들여 오정당을치여다보며  
「선싱님 나는얼굴이 잘싱긴남자라고 이러니저러니하느것이안이오 얼굴은아모리도 관게치안ियो」



「하하글세 너는그러한지만 얼굴에 밋쳐서 일성을 그리치면 못쓴다는말이지」  
경자는 오정당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으로

「선성님은 일평성의 고락이달니엿는니 운수가달니엿는니 하시지만은 지금그  
런말씀이 쓸티잇습닛가 이지경되어가지고서……………」  
오정당은 고기를기우리고 흔들면서

「아니 이지경이라할것이 아니라 인제라도 달니도리가잇스면 더도치」  
경자는 묵々히잇서 무슨말인지몰나 오정당의얼굴을 치여다보며잇다

「엇더케던지 되지안이호깃네 네 마음호나결단호기에 달니엿는니라」

경자는밋고싶은듯서

「나는결심호엿습니다」

「그러서 철업는어린마음의결심이 안인가호야 나는의심나서 못결티겟다 그러  
하니스간 일평성에 너몸을 의탁호는거시첫지라호는 말이지」

경자는 그말을듯더니 별안간에 점잔호 사람곳치

「선성님 지금와셔 그런말씀호시는것은 오히려원통호니다 지금까지라도 선성  
님은 말씀을무어라호섯습닛가 서세갓흔반호고 한가지로사는너편에는 참복  
독이점잔호 사람이라고 말씀호시지 아니호섯습닛가 선성님이 그러케 말씀만  
안이호섯더리도 니가…………아무리기로 니가…………모도다니가잘못이지 요만은

선성님이 처음부터 이런말씀을 호섯드면 나도이러케근심은아니호고 잇습것  
을 지금와셔야 엿지할수업습닛사」

오정당은 얼굴빛치 붉어지며

「안이 그런말은 으레히호말이라고호겟스나 내역씨 서세에게 눈어두엇섯스니  
간 할말업지만은 지금와셔 감안호싱각호니 모도밋친일갓더라 처음에는나도  
티단히조호스름으로 알엇더니 오날교제히셔보닛간 그러치아니호일이 만히잇  
더구나」

고기를숙이고셔 듯고잇던경자는 얼굴을들며

「아 오늘그이가 오섯지요 예」

오정당은 한참티답호기를 주저호다가

「서씨는 왔다가 지금막갓다

경자는 극히염녀호는 빛을써여

「그럼 내의론도 호섯겟구려」

「아모렴호고말고 하기는히셔도 데장리를 멀니싱각호면 암만호여도 걱정이아  
니될슈 업고나」

경자는

「그리 그냥반이 무엇이라 말씀호십더닛가」

「글세 이이 김히싱각좀히보아라 뒤스길업는 남자호고 갖치살면 무슨소용이 잇겟니」

「그러면 나를 넘어버린다고 합더너서」

「서씨의말이 지금와서 그냥반이기로 그런무정흔소리를하니가 잇겟니만은 피치지금이야 엇지살님홀슈야잇느냐고……」

쌍

「그러면 엇지합겟다 흥든말씀이오닛가 좀분명히말씀하여쥬십시오그러」

옥

「그러면 엇지합겟다 흥든말씀이오닛가 좀분명히말씀하여쥬십시오그러」

쌍

「너는그냥반호고 하여질싱각은업니 이다음싱각을 김히<홀것갓흐면 오히려고싱거리를 작만하는 것갓하여서 너싱각으로하면 애져녀에 서로 하여져 버리는것이 낫겟다하지……」

경자는모음속에 김히결단홀모양을보이면서 입살에는 철석이갓쳐서 벌벌떨며

누

「그말씀은 몇백번말씀하여셔도 밤낮맛찬가지올시다 너가기성슴피가 안이올시다……나논아모리교싱을이후에 겨글줄을알지라도 제가지은죄이오니 엇지할

슈잇습닛가 아모리피로와도 견디겟습니다 그리고 만일그냥반에게 너몸이벌

여질지경이면 나도그씨는 다시홀도리가잇습니다만은 지금니손으로 하여질싱각은 조금도업습니다네 선싱님 그냥반은무엇이라고 말씀하십더닛가 그말씀

만히쥬시면 나도결심홀일이 잇습니다」

쌍

「나는발셔 학교는아니가기로 결심하엿습니다」

옥

「그러치요 나한몸만학교에단이지안이하면 살님사리호기로 그량반에게 공부야 방히될것이업지요」

누

「그야상관이 업슬듯하지만은 세간살님에 모음을쓰면 자연공부도되지아니호고또어린히라도 나홀것갓흐면 암만히도 방히가될거시오 너도일것 학교를

쌍

얼마안이면 졸업을거슬 중간에 폐히바리기도 앓가우니 지금은잠간 멧히던지일이페일셔셔지 참앗스면 도겟다고 그러케말하더라」

누

「그것은 진정으로 혼말씀인가요 잠시위로호노라고 그리말하엿다가 아쥬하여

할며 아모조록 두사람으로하여곰 잠시간이라도 하여져잇게하면 그동안에 경

조도 써다를날이잇스리라하며 입에서나오노되로 그럴스하게말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혼말씀인가요 잠시위로호노라고 그리말하엿다가 아쥬하여  
모양이되얏스니 엇지홀단말씀임닛가」  
할며 고기를숙이고안졌다 오정당은 목소리를나직이하여

「엇지 할 슈업지야 무슨 일을 엇지 할지 못할 것 잇는나 비스속에 잇는 으히는 지금 아모렛케던지 할 슈잇지」

「무엇이요.....」

「하며 경주는 찜짜 놀니여 안팎이 빗치난다 오정당은 다시 말하나다」

「서씨는 의술비호는데 거정할것 무어시냐」

「선성님은 그것이 무슨말씀인지 못알아듯겟습니다」

경주는 몸을 벌벌떨며 무슨뜻을 오정당은 자셔히아지 못하여 잠간 주셔하다가

「조곰도 거정할거시업다 서씨가 잇는데 글세남모를셔 썩러르러바리라고 그이

도그리더구나」

「앗싸 경주는 눈에 화광이 빗는며」

「선성님 그리 그냥반이 그런말을하더란말씀이요」

「하며 얼굴빛이 홀연변하여 지는지라 오정당은 이모양을볼애 귀가 막히여 잠조

썩잇슬뿐이라」

데 심 회

오정당은 리경주의 하는모양이 예수가 안임을보고 놀나운마음에 혈말을두셔를 잡지 못하여

「글세 이애그이가 그러케씩 말하드라하는것이 안이라..... 피초학성의몸이넛

가 그리하면 조할가하는말이지.....  
경주는 오히려 격앙할얼골로

나는몸이 이모양이되어셔 엇더케 괴롭고 신산흔지 모르겟습니다 다만은 괴롭고 신산하다고 이러흔무셔운..... 참혹한모음은 업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사람이 알앗다가는 사람아귀라고 말하러이오 각신문에날것갓흐면..... 생각만하여도 몸소리가 셋칩니다 지금까지 지은죄도 만이잇는디 그외에또죄를 지을마음은 죠금도 업습니다 이일은 법률의죄인일뿐아니라 사람의도리의 버셔나는 그러흔무섭고 더러운죄악을 범할수업습니다 아모리하야도 이몸은 더러워졌지만은 이외에또그러흔죄를지으면 엇지하잔말씀이오 이런말을 만일그이가하섯스면그량반은 참아귀갓흐양반이올시다

「하며 별안간에 목이메이더니 눈물이 가득하며」

선성님 선성님은 마음에엇더하심나가 듯기만하셔도 몸소리가세치시오 그런디그러흔죄를 남다려 범하라하는말씀이오

오정당은 무안흔빛을 나타내며

나도 그야 모르는것이아니야 이세상에서도 그러흔죄악을짓는사람이 만히잇는일을 나도항상기탄흔일이지만은 네게권하는것이아니라 다만네장리싱각하는모음으로만 하는일이저 또 서씨도씩 그리하라고 말흔것이

아니라 의론을 논노라잇가 저연이런말 더러말이나온것이 지 내 마음도 아모  
조록 그리하도록 원하는말이 아니라 잠시간의 향을 써보는말이니 공연히 그  
러케걱정하지말고 잇거라

항며 분주히말명하는디 경저는고기속인디로 말업시있다 오정당은 내싱각이  
전혀헛된비되야 리경저로하여곰 서병삼을 단림케할게척도 성사치못할뿐아니  
라 그외에티아의 처치할게척도도더히실헛기 어려울줄알고 이에논 리경저와  
서병삼으로하여곰 서로빅년을누리도록 힘쓰지안이하면 불가할마음이 이러는  
다시 오정당은 다시리경저를 향하여

이이 지금하던 리약이논 한귀로할녀바리고 담아두지마라 네결심이그러  
할것갓흐면 나도힘을다히서 빅복의근원을일우게하여주마 다시는나도허  
여지게하라고 말안이할테요 서씨는 너하고又치살고싶은 생각은 굴뚝갓  
지.....

네 그량반이 날다려도 굿게밍세를다심히향섯는디 지금와서 그런인정  
업는소리야 절마할실나구요

오정당은 리경저의하는모양이 착은하여 못견디는모양으로 한참보더니

그야그러코말고 그량반도 감안이보닛간 네게는 아조반흔모양이드라 하  
々々

「선성님은 별소리를다하시느구려 그럴리도 업겠지요만은.....참이번에  
는 그량반의말을씩드려야지 그러치안이하면 나는엇지할방향을 잡을슈  
가업셔요 그량반의무음만씩그러할줄알면 우리아바지씨는 오히려걱정  
될것이업셔요 나는선성님만바라는디.....만일이번에 그량반이 나를바  
린다하면 무슴면목으로 살겟슴닛가 나는죽어모르라하는 결심이지오」  
「그런지각업는 소리하지말아 엇더든지 너가일간으로 네무음이시원하도  
록힘써주션하여주마 걱정마라」

데 심 일 회

남촌디전골근처 큰길에서 막다른골목드러셔 몇지집안이지나가셔 외가평디  
문집에 문피논김소사라하엿고 또한편으로는 서병삼이라박인 명할흔장이부터  
논디 지금까지 짓쳐두엿던대문을 췌겨하교 췌여밀어 드러가는부인은 동관스  
논오정당이라 대문열고 사름드러오는소리를듯고 그집안방으로서는 영창문유  
리를 누수그러흔녀인이 늑여다본다 오정당은 그녀인을향하여

「여기서병삼싸라고하는 량반이와서계시지안슴닛가」

그말이 다췌치지못하여 마로건너 건너방영창문이 부시々열니면서

「안이거웬일이시오 여기사지쳐오시니 참의와을시다」

하는사름은 서병삼이라